

제31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동 구 의 회

일 시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 ◎ 기획예산실
 - ◎ 주민안전담당관
 - ◎ 홍보미디어실
 - ◎ 청렴감사관
 - ◎ 인문문화국

(10시 00분 개의)

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지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인데요, 특히 푸른 뱀은 희망과 성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동구의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풍요와 지혜, 희망과 성장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관·국장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실·관·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 위원장 이지애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기획예산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기획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별첨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지애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 김재식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여쭙보는 것도 아니고 당부

말씀드릴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대외협력 강화 부분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 화순군, 조선대 해서 협력관계 구축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기획실이 전체 집행부의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우리 조선대에 링크사업들이 있어요, 링크사업단. 작년, 재작년 해서 우리 동구에서 굉장히 호평받았던 사업들 중에 쪽방촌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맨발 길, 맨발 걷기 길 사업 같은 경우에 조선대에서 하는 링크사업단의 예산을 도움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의 청년과라든지 다른 부서들이 그 사업 내용을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협업을 해서 지원도 받고 하는 게 있지만,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 모르셔서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조금 아쉬움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협업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의도한 사업들만 가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면 충분히 공유가 돼서 집행부에서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여쭙볼게요.

9페이지, 현안 사업 재원 확보 관련해서 어제도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동구 역점사업 관련해서 예산확보 난항’, 그러고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AI 헬스케어 사업이라든지, 충장상상큐브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국비가 기대에 못 미쳐서 우려

가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 앞으로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에 요청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듣고 싶네요.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예산이 필수 재원만 가지고 본예산이 편성돼서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김재식 위원**

이게 그래도 언론에 언급된 두 사업이 기주민분들도 인지하고 계시는 사업들이고 동구에서도 역점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미래 먹거리 관련한 사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의회에도 말씀 주시면 나름 저희도 협업해서 힘을 보태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식 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정말 전국 지자체에서 후원금 1위라고 기분 좋은 발표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나름의 기금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답례품이라든지, E·T 야구단이라든지 좋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위라는 쾌거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게 좀 저는 더, 지금도 홍보도 잘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홍보에 관심을 주셔서 이 사업들이 전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어서 향후에도 이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추진이 있는데요.

저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 추진계획 5번 문항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꿈 키움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진로 탐방 및 국내 역사 문화 체험으로 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토중앙천문대 등 방문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중앙박물관과 중앙천문대는 국내 역사 문화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꿈 키움 프로젝트 추진이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꿈을 펼쳐나가는 진로 탐방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지금 세부 추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 노진성 위원

아직 수립 전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예.

○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와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취지성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네.

○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1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이 작년 연초에는 두 가지 사업이었는데, 올해 다섯 가지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면 발달장애인 청소년 E·T야구단이나, 그리고 또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같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5번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가 산수초등학교 운영위원이어서 지난 연말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도 올해 대폭 예산이 삭감돼서 하던 사업들이나 아이들한테 할 수 없는 사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도 중단을 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런데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통기타 교실은 올해는 좀 확대해서 운영하니까,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숙 위원

학교 도서 관련한 거는 인문도시과에서 하나요?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예.

○ 김현숙 위원

그래도 기획실이니까 좀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 김현숙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기획실에 동구발전혁신위원회 운영 활성화해서 지역 현안이나 공약을 자문받고, 제안도 받고 하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설명도 듣고 그랬었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혁신 행정 추진 파트, 페이지 11페이지에 공공서비스디자인 및 제안제도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공서비스디자인 제도가 윤 정부 들

어서 24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죠?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예.

○ 박현정 위원

24년에 공공서비스디자인 제도를 우리 구청이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예?

○ 박현정 위원

진행을 했습니까, 이 사업을?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예.

○ 박현정 위원

어떤 게 있었죠?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지금 제가 얼른...

○ 박현정 위원

일단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이름이 생소하잖아요. 찾아봤더니 ‘국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설계과정에서 국민을 직접 참여시켜 정책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혼란스러운 정국에 개헌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개헌의 과정도 너무나 정치권으로 중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으로 개헌을 할 건가. 이렇게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디자인과 관련한 이런, 정부 플러스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하게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공공서비스디자인

과 관련해서 국민참여단 모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자체에서?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예.

○ 박현정 위원

여기에는 그런 계획은 없어서,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 발굴 및 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 주민참여점수모아제를 통해서 주민 제안 활성화하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 가능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그 부분은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정 위원

주민참여점수모아제 앱에만 의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동구발전혁신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 사실은 임택청장님의 공약 관련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하시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보니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정말 우리 동구 주민들이 국민신문고도 있고, 민원의 소통 창구는 있겠지만 정책 반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구체화 시켜서 주민참여단 모집도 하고,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예.

○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별첨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지애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 박종균 위원

접니까?

○ 위원장 이지애

네.

○ 박종균 위원

김종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보강 사업 있잖습니까?

월남 세천하고, 세천 두 군데는 사업비가 확정, 확보돼서 공사가 끝나갑니까? 다 끝나가요?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지금 용산동 세천 정비 공사는 공정이 한 50% 정도 되고요.

월남동 세천 공사는 공정이 7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종균 위원
내남동 세천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박종균 위원

하러다가 못 하고 있습니까?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올해 정부에 가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받아와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균 위원
10억 좀 못 되는데, 25년도하고 26년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아닙니다.

내남동 세천 공사는 약 9억 7,8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일단은 추진을 계속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한 번에 추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균 위원
한꺼번에 확보를 해버려야지, 26년도까지

가면 안 되겠죠.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예.

○ 박종균 위원
19쪽, 방범용 CCTV 있잖습니까. 우리 동구에 몇 개소나 있나요?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307개소, 9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종균 위원
307개소에?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915대가 있습니다.

○ 박종균 위원
915대.

이번에 올해 8개소 설치하시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장소, 지도로 나와 있는 장소 있죠?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지도로요?

○ 박종균 위원
예.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예.

○ 박종균 위원
그 부근 좀 확대해서 8개소 제 방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예, 알겠습니다.

○ 박종균 위원
마지막으로 21쪽, 한 군데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우리가 공중이용시설 26개소,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26개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동구청사, 벤처빌딩 등 2개소 하고,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등 6개소, 어린이집 1개소 등 해서 개소가 있는데, 이거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예,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 박종균 위원

있겠죠?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예.

○ 박종균 위원

그 자료도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예, 알겠습니다.

○ 박종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팀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19페이지, 2025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요. 8개소가 올해에 새롭게 신규 추가가 됐는데, 한 대당 2,500만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이죠?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예, 그렇습니다.

○ 노진성 위원

그렇죠.

307개소에 915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원성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에 배정해서 먼저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증폭이 돼서 그런 사각지대에 우선순위가 먼저 배정이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설치 장소는요. 동부서 범죤예측시스템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동부경찰서 범죤예방대응과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사회재난과와 협의, 그리고 현장 범죤 예방이 예상되는 곳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주변의 민원인들하고도 민원을 통해서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 노진성 위원

혹시 24년도에 민원성으로 제기된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였나요?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 노진성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을 때는 민원성으로 제기된 곳이 먼저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의 문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체감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증폭될 수 있겠다는 공간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거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

각하세요?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일단은 올해 설치할 때 그걸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진성 위원

충분히 협의하고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안전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네, 알겠습니다.

○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요?

박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동구 관내에 동구안전보안관이 총 47명이죠, 13개동에? 그런 거죠?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네, 맞습니다.

○ 박현정 위원

네.

제가 행감 때도 말했는데 동명이네 보안관을 별도로 시 지원을 받아서 앱도 만들고 발족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푸른마을 공동체센터에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 앱을 800 들여서 만들었는데 결국엔 무용지물이 됐고, 그 동명동이 아무래도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혼재해 있다 보니 별도로 보안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관계가 되죠? 여기 안전보안관하고?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안전보안관은 일단 조례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 박현정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일단 저희하고, 먼저 안전보안관이, 동명동 자체적으로 안전보안관이 계시면 운영되더라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 박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팀장님 여쭙보는 거예요.

동명동을 별도로 동명동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차 여쭙보는 겁니다.

그때 제가 22년도 말에 발족을 했고, 옷도 별도로 제작을 하고, 앱도 새로 만들었던 말이에요. 그때 그게 시 지원으로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제가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정 위원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안전한 동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 안전담당관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죠, 우

리가.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부주의함도 있지만, 대부분 규칙이나 원래 하기로 했던 인원수를 맞추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중대재해는 그렇죠. 2인 1조, 3인 1조, ‘반드시 이 사업장에 이 현업은 3명이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문제로 2명으로 줄인다거나 1명이 한다거나 하면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공공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예,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 돋보기의 날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 왔었는데 올해는 동구 안전문화대상 발굴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김현숙 위원

여기 지금 안전 돋보기의 날, 그 사업을 계속 작년에도 해 왔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없었던 동구 안전문화대상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한다고 사업에 올라와 있어서.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일단 안전에 대해서 주민안전봉사단 해서 선발을 하는 거, 작년에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발굴·선정 및 시상함으로써 안전 돋보기의 날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 김현숙 위원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대나 자긍심 고취도 되고, 해서 이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가족이나, 또는 단체 시상을 할 수도 있나요?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잘 못 해서요.

○ 김현숙 위원

여기 내용상에 보니까.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현숙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

는 주민안전담당관실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있었던 무안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실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깨가 조금 더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번 무안 여객기 참사를 보면서 새롭게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금년 동구청에 안전 관련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가 안전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실은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사각지대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소외받고 못 챙겼던 분야들이 발굴돼서 챙겨보는 사업들이 위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무안 여객기 참사를 보면서 느꼈던 바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가 보통 이번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기존에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안전 지침 관련된 걸 챙기는 게 위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진정한 사각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발굴해 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안전 돋보기에도 보니까, 안전 돋보기 사업. 20페이지 여기도 보면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관리 리스트 작성·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이것 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이거 관련해서.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관리 리스트 작성·관리, 이거는 보통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사각지대 발굴 말씀하실까요?

○ 김재식 위원
예.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일단은 지금 주민 안전 돋보기의 날은 안전모니터단, 그리고 자율방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1일 이상,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1일에 4시간 정도 해서, 동을 특수한 동을 지정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데를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되는 곳은 안전신문고에 올려서 안전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각지대는 특별하게 따로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봐서, 작년 거라도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 의원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무안 참사 같은 경우에 로컬라이저 해서 법 제도라든지 그런 거에 문제점이 없었다고 처음에 국토부에서도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바뀐 규정 탓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진정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작업을 우리 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동구생활안전보험 운영 관련해서 보장 기간을 보니까 '1년간 해서 3년 이내 청구 가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보장 내용에 있는, 표 안에 있는 이 모든 보험 내용들이 공히 전부 다 3년 이내에는 청구 가능한 건가요?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예, 그렇습니다.

○ 김재식 위원

그래요.

저도 이 내용은 좀 생소해서 이것도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예.

저희가 지금 건수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시민 의식도가 79.8%로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86.4%. 작년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 박종균 위원

팀장님, 한파 응급 대피소, 저번에 언론에 나와 있던 거. 그거 지금 산수동에 국민

체육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죠?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균 위원

광주광역시에서 지정을 해서 설치가 된 겁니까?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광주광역시에서 지정을 의뢰해서 저희가 적당한 위치를 해서 국민체육센터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균 위원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예, 지금도 지정을 해서 앞번에도...

○ 박종균 위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나름 기금도 있고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일단은 거기 내부에 들어가는 용품은 기본적으로 잠잘 수 있는 침낭,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라면이나, 식료품이나 그런 자재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언론에 나와서 담당자 현장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차질 없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종균 위원

한파가 끝날 때까지는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종도

예, 알겠습니다.

○ 박종균 위원

혹시 의회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

십시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종도
예.

○ 박종균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CCTV 방범 위치 지도하고요. 공중이용 시설 26개소 자료, 박종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량 안전관리 리스트 작성 기존 자료 있으신 거, 김재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 좀 저희 모든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셔서 항상 고생하시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종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별첨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이상 홍보미디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지애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 김재식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25페이지 빛고을 1번지 개편 관련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청년ZIP 신설 사업이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조선대 아마 자유전공학부나, 아마 문학 관련한 부서였던 것 같은데, 우리 동구 어르신들 자서전 사업도 이 친구들이 좀 같이 협업을 해서 멋진 결과물들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이제 이 사업보고서만 보게 되면 지역 대학생 칼럼 해서 소셜, 수필, 시 등 연재 예정, 그렇게 돼 있는데, 실은 우리 빛고을 1번지가 주민 여러분께 좋은 정보도 제공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장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설, 수필, 시 등 이렇게 돼 있으면, 특히 20대 청년들에게 뭐 감성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이분들한테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제 그 장르가 굳이 소설, 수필, 시, 여기에는 이렇게만 기재가 돼 있지만, 그 친구들의, 20대 청년들의 수기 형식의 좀 본인들의 경험담, 요즘에 있는 고민들, 좀 그런 내용들이 좀 기재가, 발간이 돼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좀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27페이지에 주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아마 최근에 우리 동구의 회로도 그런 요구들도 오고 있습니다.

소수지만 특히 어르신들, 주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이런 강좌도 개설해 달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했을 때 좀 소수지만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그런 민원이나 요구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공공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실은 우리가 재난이나, 안전 분야에서는 특히 우리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데이터 기반 평가에서 분석 활용 등 16개 사업이라든지, 뭐 개방 활용 등 17개 사업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

한 사업들 그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히라도 좀 우리 의회로 자료로, 작년 거라도. 해서 저희도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적극 반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 홍보미디어실로 처음으로 넘어온 업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면 지금 새 홈페이지 보면, 새 홈페이지 보면 거기 정보공개 코너가 있어요. 거기 안에 지금 빅데이터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 김재식 위원

저는 그 빅데이터는 항상 그렇게 분석해서 된 자료들은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만, 활용된 자료가 있으면.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아, 활용된 자료.

○ 김재식 위원

활용된 자료가 있으면 좀 간략하게라도 한번 정리하셔서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알겠습니다.

○ 김재식 위원

한번 그걸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쭙볼게요.

방금 전 김재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청년ZIP 신설하셔서 칼럼을 연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연재되는 겁니까?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아니요. 이제 빚고을 1번지에다...

○ 박현정 위원

빚고을 1번지에.

홈페이지에는 연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이 부분들이...

홈페이지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설문을 하다 보니까, 청년분들이 본인들이 조금 본인들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선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나 수필을 게재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도 또 학점이라든가 이런 거 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 박현정 위원

예.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그런 차원에서 한번 청년들하고 좀 공감이 되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아직 안 했는데, 홈페이지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현정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물론 우리가 빚고을 1번지를 발간하고 있지만, 그 매체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홈페이지나 이런 온라인이 훨씬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또 동구청 홈페이지도 더 많이 들어와 보게 되고, 궁금해서 다음 연재 읽으려고 들어와 보게도 되고, 다른 것도 알게 되고 할 거기 때문에 빚고을 1번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발행하지만 못 보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거 있다는 걸 모르는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핸드폰은 다 있고, 누구나 온라인 접근성은 다 열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동구청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서 이런 것들도 있으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들어와서 보시게도 되고.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네.

작년 말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 올해부터 지금 빚고을 1번지를 전체적으로 배부 부수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정비를 해서 전동에 한 89.9% 정도 배부되게끔 골고루 이렇게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현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주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관련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추경도 있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 10명에서 30명 이내, 그 사업은 똑같은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지?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줄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구민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1년에 한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이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하기가 조금 약간 부족한 예산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배움터를 연계해서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숙 위원

그래요.

긴축 재정으로 다 예산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네, 알겠습니다.

○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저도 빗고을 1번지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추진 계획에 청년ZIP 신설에 있어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연계 지역 대학생 칼럼 연재가 있는데, 자유전공학부에만 국한돼서 칼럼을 연재를 하는 겁니까?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아뇨,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청년들한테 시나, 수필 또는 본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자서전적인 그런 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 게재를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다 공지로 열어놓겠습니다.

○ 노진성 위원

그러면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하다 보면 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기본적인 조선대 자유전공학부하고 연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는 계속 진행을 하고, 모두 다 오픈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조선대학교만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이라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최초로.

○ 노진성 위원

학교는 그러면 조선대학교만 지금 일단은...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전체적으로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다른 학교도 제출하면...

○ 노진성 위원

왜 그러냐면 이공대도 있고, 간호대도 있고 하는데, 서운해할까 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저도 청년층에 있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먹고사는 문제가 일자리겠죠. 일자리는 여기 프로그램 등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우리 빚고을 1번지에 좀 관심도,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먹거리 있잖습니까. 이를테면 착한 가게와도 협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동구 관내에 숨어져 있는

맛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다 핸드폰으로 찾아보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과격적으로 빚고을 1번지를 통해서, 어떤 협력 가게나, 착한 가게라든지,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그런 카페를 간다든지 그럴 때, 우리 동구 SNS 팔로우를 했을 때 좀 5%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좀 신선한 것들이 좀 들어가야 청년들이 또 한번 보고, 또 방문도 하고, 또 지역 경제도 함께 활성화하면서 홍보도 같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네.

기존에 이제 그런 가게들은 소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뭐 거기에서 할인을 적용하는 거는 담당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노진성 위원

네.

같이 협력을 해서요. 홍보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상생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알겠습니다.

○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장주영 계장님이 동백카츠 이런 거 올려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여러분이 찾아가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더

라고요.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또 그렇게 개인으로 해주시는 것도, 빗고을에도 좋고 그렇긴 한데, 개인으로 해주시는 게 또 바로 동명동 상권에는 영향이 있었나 봐요. 그런 빵집이랑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 활용 자료 요구, 김재식 위원님께 드리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감사관 배주석

청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지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별첨

○ 청렴감사관 배주석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지에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청렴감사관 배주석

감사합니다.

○ 노진성 위원

간단하게 31페이지 청렴 동구 실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동구가 5년 연속 청렴평가도가 2등급이지 않습니까. 올해 꼭 1등급으로 달성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32페이지에 감사 행정 실현이 있는데요.

올해는 직영·수탁 기관, 수행 기관 감사 대상이 4개소 정도 되네요.

그 4개소에서 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오는 것이 채용에 대한 문제, 성범죄 조희라든지, 그리고 보조금 부적절 사용, 업무 내역서 누락,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전에 2024년, 2023년 지적을 받았던 그런 대상 기관들은 혹시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청렴감사관 배주석

적발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저희가 다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처리 상황을 저희가 다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 노진성 위원

각 부서에서, 그리고 또 청렴감사팀에서

도 어떤 규칙이나 제한점을 좀...

규칙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지적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끝내고 나서 또다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이 났을 때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 부서들과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청렴감사관 배주석

네, 알겠습니다.

○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 박현정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여쭙봤는데요.

기사가 나와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 지금 광주 유일하게 동구만 고충처리위원회가 없다, 이라고 있는 건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일원화돼 있어서 답변 속도가 빠르지는 않고,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거를 각 지자체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동구는 이걸 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뭐 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렴감사관 배주석

예전에 한 번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 한 번 더, 올해 기사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소민원실장이 또 있어서, 주민들의 고충 민원 같은 경우 직접 상담도 하고 있고요.

또 고충 민원은 보통 보면 실과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민원을 이제 고충 민원이라고 해서 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충 민원도 어차피 저희한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우리 구청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어차피 그렇게 하면, 온 내용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실과 부서에 의견 표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운영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또 직소민원실장과 이렇게 상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정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기사가 너무 좀...

너무 동구를 딱 집어 가지고 나와서, '소통 창구 닫은 동구, 말로만 열린 행정', 이렇게 좀 이제 네이밍이 나왔잖아요, 타

이틀이. 그래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 직소민원실장님 관련해서는 저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직소민원실장한테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는다는 주민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네, 직소민원실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그렇게 또 말씀하셔서...

구청장 직속 번호를 공개하는 타 자치구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걸 무슨 말 이죠?

○ 청렴감사관 배주석

그것은 서구하고 지금 광산구에서 청장님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해서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직접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이제 청장이 직접 핸드폰을, 전용 핸드폰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빨리빨리, 옛날 우리 동구 두드림 운영할 때처럼, 동구 두드림에 올라오면 그걸 옛날에 청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부서에 지시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현정 위원

우리가 그거 하고 있다고요?

○ 청렴감사관 배주석

아뇨, 아뇨

서구하고 광산구, 두 군데.

○ 박현정 위원

다른 서구하고 광산구가 하고 있다는 거고요.

○ 청렴감사관 배주석

네.

○ 박현정 위원

우리 동구는 어쨌든 창구는 국민신문고밖에 없는 겁니까?

직소민원실하고?

○ 청렴감사관 배주석

아니 창구는 국민신문고도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현정 위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 청렴감사관 배주석

행정지원과에서도 종합 민원 이력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서 또 관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이 주민과 간담회 할 때라든가 이런 때 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부 지금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국민신문고만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현정 위원

기사화가 됐으니까요. 우리 감사관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 청렴감사관 배주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정 위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주 5개 구에서 2개 구가 시민고충민원실 설치에 돼 있는 거예요?

○ 청렴감사관 배주석

아니, 4개 구하고 시청은 설치에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서 카톡으로 민원을 받는 것은 서구하고 광산구 청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김현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들어왔을 때, 우리 동구로 들어왔을 때 그 심사를 하고,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주체는 누가, 위원은 누가 결정을 한가요?

○ 청렴감사관 배주석

그러니까 이제 고충 민원은, 모든 민원을 고충처리민원위원회에서 처리한 게 아니고요.

고충 민원이라고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그러면 고충 민원은 뭐냐 하면 일반 부서에서 처음에 민원을 제기를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이제 자기만족도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고충 민원으로 신청을 하면 저

희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위원회에서 부서에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의견 제시를. 그러면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처리를 하죠.

○ 김현숙 위원

이제 들어온 민원들이 채택이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채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 청렴감사관 배주석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적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거나,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 민원, 고충 민원 이렇게 해서.

고충 민원을 선택해서 본인이 내용을 적어서 올리면 저희가 국민신문고, 청렴감사관실에서 국민신문고를 총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서 처리를...

○ 김현숙 위원

그러면 시민고충민원실을 설치 안 한, 행정에서 안 한 이유가 있는가요?

○ 청렴감사관 배주석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떤 인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법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는 인구가 100만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사항은 아니고,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다 권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숙 위원

상위법에 두게 돼 있다거나 이런 게 없는가요?

○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권고로 설치를 하도록 해라 하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이 권고가 돼서 다 검토를 예전에도 했었는데, 나머지 구청들은 뭐 빨리 한 데도 있고, 뭐 작년 한 데도 있고, 재작년에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 김현숙 위원

하지 말자고 결정이 된 거는 어디, 위원회에서?

○ 청렴감사관 배주석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죠.

다시 한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김현숙 위원

그래도 설치를 해두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설치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한 게 좋지 않을까요?

○ 청렴감사관 배주석

그러니까 민원인들...

우리가 고충 민원이라는 것이 한 번 민원이 제기돼서 또 민원을 다시 한 번 제기

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지만, 또 해결이 안 되면 또 다시 민원을 상위 기관에 시청이라든가,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 또 신청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충처리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숙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깊게 또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 청렴감사관 배주석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재식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히 우리 박현정 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김현숙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구청장 직속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들 이전 지방선거 때 공약 사업들이었어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담당 부서에서 일단 민원들을 다 한번 접하시고, 그리고 나서 고충 처리 민원으로 다시 또 넘어오는 경우들인데, 실은 저는 아까 감사관님도 말씀해 주셨습시다만, 그 해당 부서에 올라온 민원들, 그 이력 관리, 그리고 민원 해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해소율들, 그런 관리들이 오히려 더 좀 꼼꼼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굳이 제가 볼 때 고충처리위원회 그것도 다시 또 한번 검토하시겠다고는 했습시다만, 그 실효성을 따져서 제가 볼 때 꼭 보여주기식의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효율성을 따지셔서 나름의 행정을 해주시면, 저는 그게 충분히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청렴감사관 배주석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식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 실현에서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아마 특정 감사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기관에 대해서.

근데 지금 동구가족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두 군데 어린이집,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순환하다가 지금 특정 감사 대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사유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된 건가요?

○ 청렴감사관 배주석

부서에서, 관련 감독 부서에서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민간 위탁 기관이 한 60~70여 개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순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 김재식 위원

아까 추진 방향 이렇게 설명하실 때도 적발 위주의 행정이 아니고, 지도 위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올해 할 4개 기관도 예를 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지정되고,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들, 어린이집이라든지 보면, 지도 점검 나갈 때도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점검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들을 보면 그 인원들이,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뭐 가족센터 같으면 다문화, 그리고 또 많은 1인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린이집 같으면 아동들, 어린이들 케어를 해야 되는데, 지도 점검 한번 나오게 되면 정말 끝없이 보이는 그 서류철 놓고 서로 감독 당국의 감사 업무를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좀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실은 하다 보면 좀 감사하시는 분의, 그 지도하시는 분의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분들 인권도 지켜줘 가시면서, 그리고 좀 업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도 좀 감안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청렴감사관 배주석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위탁기관 본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잘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31쪽에 보면 작년에 청렴도가 1등급 하락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청렴시책 교육 등 활동 실적을 수치화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청렴감사관 배주석

저희가 직원들이 청렴 교육을 받는다거나, 청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다거나, 뭐 또 청렴 관련해서 어떤 실천을 했다거나 하면, 저희가 마일리지로 점수를 부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실적을 1년 동안 이렇게 매겨서 거기에 대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지애

그러면은 횡수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걸로 수치화하신다는 건가요?

○ 청렴감사관 배주석

예. 저희 시스템에다가 그걸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지애

아니, 젊은 MZ 직원들도 많고, 청렴에 정

말 관심 많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하면 좋은 사업인데,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지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이지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문문화국장 임덕심

인문문화국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상반기 인문문화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별첨

○ 인문문화국장 임덕심

이상으로 인문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지애

임덕심 인문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인문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40페이지에 어르신 생애출판 사업에 관련 돼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5,700만 원이 작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

혹시 작년에 몇 분이 자서전을 출판하셨고, 제작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작년 처음에는 28명이 참여를 하시다가...

○ 노진성 위원

몇 분이요?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28명 정도 하시다가 중간에 좀 힘드셨는지 최종적으로 열여덟 분이 참여를 하셔서 세 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 노진성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를 몇 분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스물여덟 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저희가 한 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갈수록 자서전 쓰실 분들이 다 쓰셔서 참여하실 분들이 줄어들 것 같아서, 쪽방촌 한번 찾아가서 인권 교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 노진성 위원

혹시 출판된 자서전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어찌 됐든 기록물로 다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서의 아카이빙 대안이 있습니까?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현재 1층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 노진성 위원

네, 봤습니다.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책정원에 아카이빙이 되어 있고, 구립도서관 책정원도 지역 도서 코너가 있어요. 거기도 아카이빙이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작가로 등단을 해서 예스24에 책이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2의 직업이 작가로서 삶도 갖춰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미래 세대의 꿈을 키

워주는 인문활동 추진이 있습니다.

2번 문항에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선정이 되지는 않은 겁니까?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일단은 2년 동안 백두산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녀왔는데요. 또 서울 지역 국제기구도 탐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문화적 사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한번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전에 본인들이 어떤 나라를 갈 건지 공부를 하게 하고, 동남아라든가...

예산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자기들이 여행계획을 짜서 발표하게 하고, 워크숍을 해서 거기에서 순위가 있는 것을 그 나라로 결정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역사를 배우고 우리와 문화교류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이라든가 다문화들, 이분들하고 연대해서 프로그램까지 향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 노진성 위원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관 주도의 객체가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나라를 선택한다는 거죠?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그렇습니다.

○ 노진성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엇그제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인문도시 관련해서 단순한 구호와 브랜드에 그치지 않고 동구의 가치와 철학이 녹아드는 사람 중심의 성숙한 인문도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의 핵심부서가 인문도시정책과가 아닐까 싶고, 알아보니까 '365일 설레는 36.5℃의 따뜻한 인문 동구' 이 네이밍을 인문도시정책과 이정아 주무관님이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 박현정 위원

그런 거 만방에 알려주시고, 포상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여기저기 같이 등장할 때마다 주민들한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 박현정 위원

담당 주무관도 뿌듯하겠지만, 우리 주무관이 그런 이름도 만들었다고 하면 적절한 포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올해는 우리 도시 브랜드 인문 동구로 작년에 표방을 했고, 인문 동구를 좀 더 정말 본궤도에 진입시키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문대학 있죠, 인문대학 올해 몇 회째 시작했죠? 동구 인문대학.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 박현정 위원

아, 민선 7기 때부터 해서 19년에 인문대학이 시작됐군요.

여기 4,690만 원 정도 구비가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여성대학도 하고 있지만 별도로 인문도시에 맞게끔 인문대학을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는 되게 많은 주민들이 ‘동구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타 구에서 되게 부러워하고 각광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계층, 연령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인문대학 몇 번 가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시간대도 그럴 수 있고요, 저녁 시간이니깐. 여성대학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딱 차는데, 인문대학은 빈자리도 많이 있고, 하지만 내용은 참 알차고 좋은데요.

인문대학 회원모집 및 홍보 25년 2월부터 3월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인문대학 회원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 나가면 고객층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하고 있는데 따로 별도로 ‘인문대학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갈수록 계속적으로 인문대학 참여하기 위한 사전 모집을 하거든요. 그

러면 사전 모집을 할 때 새로운 분들이 요청이 되게 되면 계속 추가되는 상황이에요.

○ 박현정 위원

아니,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왕 인문대학 퀄리티 높은 내용으로 강사진도 사실은 우수한 강사진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하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요.

강의 말미에 보면 항상 평가하시더라고요. 오늘 강의가 어떠했는지 평가지 나눠 주시는데, 저는 지면을 최소화하고요.

요새는 제가 6층 대회의실에서 어떤 행사 참여했을 때 앱 통해서 모두 핸드폰 꺼내서 앱 딱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번호 누르고 하는 것처럼, 앱을 통해서 바로바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면 다 써서 걸어서 나눠주고 걷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더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저는 과장으로서 계속 그 이야기를 주문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실무자께서 곧 적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박현정 위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앱만 깔면 되니까.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50대, 60대, 70대,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하고. 지금 인문대학 마니아층이 계속 일정하게 오는 거는 50명, 70명, 100명 되는데 그분들만 오시잖아요. 그 외에 확장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아까 사전 접수, 회원모집 이런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재미가 어떤 편향적으로 있다 보니 그 부분이 부족해서 아닌가 해서, 재미 요소를 플러스 시킬까, 아니면 주제별로 할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박현정 위원

다양한 검토를 하고 계시군요. 복지정책과가 늘 말하는 동구 1인 가구 50% 넘습니다. 은둔형도 많으시고, 그런 분을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하실 건가, 연계해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짧게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국장님도 계시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문학당이라든지, 예전에 전략추진단에서 했던 충장축제라든지 고정돼서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인문학당도.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올해는 했던 사업이 내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프로그램들 진행하셨던 분들, 실은 이걸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진행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그 사업이 없어진대거나 그럴 때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서 이 사업이 올해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다음 연도에도 시행이 되는데, 진행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분의 상실감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충장축제도 위원장께서 정말 오랜 시간 나름의 기여를 해주셨는데 그분에 대한 그동안 고생하셨노라 하는 예우, 그분들이 또 동구를 위해서 기여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동구에 대한 서운함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앞으로 수많은 사업해 나가시는데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잘 되는 거는 지속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실제 운영하셨던 분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동안 운영했던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행정 집행부 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그분 또한 다른 여건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니다.

○ 김재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단순 앱에 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 연도, 어차피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데 그분들의 노하우도 저희가 전수 받을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알겠습니다.

○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작년 한 해 동안도 인문도시정책과에서 했던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처음에 인문도시정책과 신설됐을 때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이게 발전되어 갈까? 제가 궁금했는데, 오늘의 인문도시 동구는 정말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인문학당에 가서 위원회 회의를 하고 하면서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위원회 안에 계셨지만, 참 우리 동구가 인문도시를 발전시켜 오면서 많이 정서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졌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42페이지, 사람 중심의 건강한 인문

환경 조성 관련해서 동구 인문학당 운영 여기 보니까, 올해 4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문학당 건축 아카이브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사실 인문학당이 처음에는 철거될뻔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보존해야 된다,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미 정책이 정해진 거를 청장님께서도 잘 변경을 해서, 잘 받아들여서, 죽었다 살아난 건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인문학당처럼 곧 사라질 위기의 건축들이 저희 동구 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 김현숙 위원

네, 맞습니다.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그래서 그런 아카이브들을 전문가하고 서로 나눠서 우리 지역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한옥이라든가, 어떤 건물이 스토리가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문학당처럼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아카이빙을 하고, 또 한 번 돌아보고, 다시 이야기해서 거기의 스토리를 기록화시켜서 스토리는 사라지지 않게 하고, 이제는 그런 건축들이 향후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의견을 서로 나누고 기록화하려고 합니다.

○ 김현숙 위원

기록화하시려고.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예, 일단은 기록화시키고.

그런 건물들에, 지금 비어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고, 또 약간 도시재생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어서 행정의 접근하다 보면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기록화 쪽으로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스토리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기록화의 연장선이고, 향후에는 이렇게 인문학당처럼 되면 좋을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항을 열어 놓고 저희가 아카이빙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현숙 위원

그래요.

청년아지트센터나 다 한옥을 개조해서 한 거잖아요. 참 그런 부분에서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계획하신 사업들이 잘 추진되시길 바랍니다.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공동 관심사여서, 책정원 잘 운영되고 있죠?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균 위원

이게 화순하고 광주 동구하고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책정원이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구 전체, 또 광주시 인근 주민들, 심지어는 화순 군민들까지도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혹시 1년이 좀 넘었는데, 1년간 이용자 숫자 나와 있나요?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미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 박종균 위원

그렇죠, 그 정도면 대성공이잖아요.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미

그렇죠.

○ 박종균 위원

만약에 불편한 감이 있어서 숫자가 줄어 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미

불편한 점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 박종균 위원

개선을 해야 되겠죠?

얼른 보니까 주차장 문제인 것 같아요.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미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같이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종균 위원

참 안타깝다, 우리가 설계할 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주차장을 너무 적게 했다. 물론 조그만 주차장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우리 도서관 주차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서관 오신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찌다 보니까 거기
가 주차장이 없는 동네로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하루 24시간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많았었는데, 지한 유
치원 옆에도 사실 유료화가 1월 25일부터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카풀하는 주민들, 그
분들이 차를 많이 대고, 거기에 우리 책
정원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멀리
서, 우리 지역 주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특
히 방학 때. 지금 이때. 사실 차 댈 곳이
없어요, 주차할 곳이.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그렇습니다.

○ 박종균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인문도시정책과만 고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얼른 보니까 푸른도
시과, 또 옛날로 치면 교통과죠? 지금은
보행교통정책과? 또 거기다가 도시공간계
획과? 거기까지도 아울러서 앞으로 연구
를 좀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우리가 심
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이용자가 많아지는데, ‘거기
주차장에 대기가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
래 버리면 계속 숫자가 줄어든단 말입니
다. 그러면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의 꿈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주
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
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박종균 위원

관심 있게 주차장 확보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네, 알겠습니다.

○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문문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항
상 앞에 있다가 인문이 앞으로 온 만큼
저희 구의 목표가 정확하게 드러난 것 같
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인문문화국
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
문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
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
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1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문화예술체육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

감사합니다.

○ 노진성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53페이지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국가유산 야행 추진에서 사업명에 보게 되면 9년 연속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9년간의 누적 방문객 수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요소, 이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9년까지는 너무 과대일 것 같고요. 23년, 24년 이 2개년만 정리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 주제와 배경이 계획이 되어 있던데, 구체적인 콘텐츠 차별화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

예.

○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 김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짧게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53페이지, 국가유산 야행

추진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최근 3년 거, 채용하고 운영 현황 좀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구 드릴게요.

○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

예.

○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두 분이 요구하시는 자료 만들어서 저희 의원 모두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문화예술체육과」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두 쪽을 넘겼군요.

과장님, 그러면 이왕 늦어졌으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저도.

54쪽 보면 찾아가는 미술은행 있잖아요. 현재 보유 중인 171점의 작품 구입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

제가 그 구입 총액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지애

예, 그렇게 하고.

연간 대여실적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고

요.

작품 대여료를 취득가액의 0.5%로 책정 했는데, 그렇게 근거가...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

제가 세부적으로 타 지자체까지 사실 파악은 못 했고요.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부담률을 낮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171점 중에 최근에 미술은행에서 동구동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규 개인이 여덟 분이 추가로 대여를 하고 확보하면서 한 90점이 대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인문문화국장 임덕심

이 사업을 부수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취득 단가의 0.5%에는 우리 공유재산 대여율이 있어요. 거기에 적용해서 하는 단가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좀 궁금했었습니다, 취득가액 0.5%,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 박현정 위원

네, 저도 미술은행 관련해서...

박현정 위원입니다.

동구동락 갤러리, 미로센터 갔다 왔었잖아요. 동구의회도 대여 신청하고 왔었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왕 우리 동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날 갤러리 돌면서 제가 느꼈는데 진짜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 갤러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 예술작품이 주는 힘이 이런 거구나.’ 느꼈거든요.

그래서 171점에 90점 대여 됐다고 했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청받고 있잖아요. 와서 대여를 신청받고 있는데 신청받는 것도 하시고, 이를테면 쪽방촌 들랑날랑 커뮤니티나 이런 관내에 그런 작품들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과가 가서서 이런 데에 작품을 몇 점 걸어야겠다, 자원순환센터부터 해서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시는 모든 관계 기관에 이런 미술 작품들이 많이 좀 걸렸으면 좋겠다, 예술 작품이 주는 힘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좀 내고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봅니다.

○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

네, 거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하셨던 자원순환센터나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도 지금 대여를 해서 게시가 되고 있고요.

○ 박현정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초동적으로 하다 보니 개인 대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좀 찾아가는 미술은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1~2월 중으로 저희가 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올해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현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구가 유독 1인 가구가 많고, 복지 수요도 많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전수 조사했지만, 한 번도 밖을 나오지 않은 은둔 1인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된다면 그런 분들의 가정에 찾아가서 이런 그림 하나씩 걸어 드리는 것도 전 정말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예술체육과가 선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

네, 알겠습니다.

○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주 문화예술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관광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과장은 답변적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과 명칭이 신설돼서, 동구 수소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3대전략추진단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지속가능과로 넘어왔죠. 그런데 그거 한번 여쭙보고 싶어요. 뒤에 추후에 기후환경과에도 여쭙보겠습니다만, 수소도시 추진하시면서 타 지자체가 아마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들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네.

○ 김재식 위원

향후에 우리도...

물론 수소도시, 이 사업만 가지고 이거하고 연계시키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향후에 아무튼 우리 동구 자체적으로도 이 특화사업에 조금 관심을 뒤야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저희가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서 생산되는 한수원 연료전지 528MW는 한전에 100%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의한 직접거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광주·전남 쪽에 태양광이나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거래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는 저희 과가 아니라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아마도 그런 특별지구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위원

그래서 제가 추후에 기후환경과에 문의를 드릴 겁니다, 또 요청을 드릴 것이고.

그런데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시는 주요 주무 부서로써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네.

○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 박종균 위원

과장님,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사실 관광 부서에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같이, 사업을 하는 부서를 넣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저희 수소도시계가 명칭이 미래도시기반 조성으로 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일단 어쨌든 저희가 위생매립장이, 소태동 166번지에 있는 위생매립장 부지가 어

찌 보면 우리 동구의 미래도시를 하기 위한 마지막 공간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미래 지속 가능, 미래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수소도시를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 박종균 위원

그런 미래산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예산확보는 얼마나 됐나요?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현재 올해 국비 65억하고 시비 32억은 확보가 됐는데, 구비 26억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경에...

○ 박종균 위원

올해 25년도에 된 건가요, 26년도에 된 건가요?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25년.

○ 박종균 위원

24년도에는 전혀 안 됐나요?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24년도에 다 됐습니다. 그건 이월됐고요.

○ 박종균 위원

그래서 24년도하고 25년도 하고 합쳐서 65억인가요, 국비가?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아뇨, 아뇨, 아니요. 10억이고요. 75억입니다.

국비 24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연말에 12월에 넘어와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국비 10억과...

○ 박종균 위원

우리 구비를 얼마 여기에 확보해야 되나
요?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24년도에는 4억이 확보가 됐고요.

25년도에는 26억을 해야 합니다.

○ 박종균 위원

30억.

순수 우리 구비인가요?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26억이 올해, 25년.

○ 박종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억을 했으니까, 올해
26억을 하게 되면 30억이 우리 순수 구비
죠?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네.

○ 박종균 위원

그리고 나머지 114억을 우리가 구에서 확
보해야 되는데, 84억은 균특자금인가요?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전체적으로...

○ 박종균 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균특
자금이라고.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전체적으로 420억에서 210억이 국비고,
시비가 126억이고, 구비가 84억을 전체적
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
비는 균특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 박종균 위원

그럼 순수 우리 구비 30억은 확보가 다
되버리네요, 올해 안에?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해야 하는데 25년도 26억은 아직 미확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비와 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
다.

○ 박종균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김재식 위
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도시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연 그 부가가
치가 얼마나 있느냐, 또 그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수소도시, 그리고 나머지 기후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은 거기에서 나오는 연료, 사
업비 이런 것은 수소도시에서 관리를 해
야 되고, 그럴 경우 두 개로 나뉘어나요?
우리 소태동에 있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
이? 앞으로 나뉘질까요?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앞으로 운영에 분산 에너지가 저희가 만
약에 생산해 내는 에너지가 남는다고 생
각하면 조성이 완료되고, 그럴 경우에 분
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직접
거래도 가능할 수 있게 그 전에 기반 조
성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직접거래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거...

○ 박종균 위원

그래요?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네.

○ 박종균 위원

문제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차츰 우리가 수시로 소통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과장님, 여기 글로벌 축제가 들어있잖아요, 충장축제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정말 여기 목적에 나와 있듯이 글로벌 컬리즘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작년보다는 더 자주 저희에게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대안도 찾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실 때마다 조금씩 같이 의견 좀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네.

○ 위원장 이지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지속가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과가 인구가 새로 더해졌는데요. 노장과에서 일하셨던 박진옥 팀장님이 지금 이 사업 맡으셨네요. 기대가 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사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거인프라도 개발하고, 관련한 사업들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계획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좀 드립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 공유 부탁드립니다.

박진옥 팀장님이 여성아동과가 했던 출생정책사업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업이 여기로 넘어왔네요. 일단 그렇고요.

백일상 관련해서 사실 주민들 만나보면 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차차 이

건 같이 논의해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하단에 온마을이음학교 동구교육협력센터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을 몇 분 만났는데, 저희가 초등학교가 11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5개 있는데, 시교육청하고 이룰테면 마을협력학교라고 해서 11개

초등학교는 시교육청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협력학교, 비협력학교. 이거 과장님이 아실 건데, 제가 알기로 11개에서 7개는 협력학교고 4개가 비협력학교더라고요.

비협력학교는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협력학교는 저희 구가 예산을 대서 여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동구교육협력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자료로.

이 관련해서도 과장님하고 할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온마을이음학교가 3년 정도, 마을교육공동체가 3년 정도 되면 온마을이음학교잖아요, 첫 단계가 새내기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따로 한 번 만나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지금 시 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마을사업을 이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센터 2층에 이음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유하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비협력학교 체결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정 위원

네. 관련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이야기 한 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네.

○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쭙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인수인계가 잘됐나 모르겠네요, 지금 인구 업무가 넘어오면서.

69페이지에 인구 유입·정착 환경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월남, 내남동 그쪽에 지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갈수록 이주민들이 생겨나는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기획실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거든요. 중학교 진학이 무등중학교 밖에 안 되는 거 때문에 고학년으로 가면 부모님들이 타 구로 전출을 가세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겨보셔야 되겠다 했는데, 혹시 그거 인수를 받으셨는지?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예.

교육청에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도 한번 저희가 건의해서 회신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학교로만 중학교 진학이 되는데, 타 구로 가게 될 경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유출이 안 되도록 신설 부분을 좀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위원

사실 신설은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학군. 배정 학교를 넓히는 거,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좀 그걸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70페이지 출생 환경 조성 보면, 제가 전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심야 어린이·아동 응급실. 우리 시에서는 달빛병원을 기독교병원으로 해서 유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얼마나 사실 좀 안타깝습니까. 우리 동구는 전대, 조선대 있음에도 의료 환경 때문에 아동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이 없고 해서 타 구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동구, 며칠 전에도 아동 부모님께서 기독교병원 가셨는데, 제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물론 아마 경증 정도만 될 것 같은데, 급한 상황이 생겨서 밤에 갔는데, 기독교병원에서 야간에 진료가 안 되더라 하는 또 그런 민원이 또 있었어요.

했을 때 지금 최근에 서구에서도 보니까 달빛병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5분 발언도 하시고 막 그런 것 같던데, 우리 동구도 절대 그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추후에 또 달빛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병원 유치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꼭 우리가 인구 정책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아주 큰 또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업적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심을 꼭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박현정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비서, 송진환 정책비서관님이 교육 쪽 협업을 많이 좀 하시는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 청년정책과가 그분하고 소통을 하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네, 작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 박현정 위원

제가 이제 마을교육활동가를 만나면서 안 사실인데요. 복지학교라고 지정을 하나 봐요. 아시죠? 알고 계신가요?

그 아이들이 차상위나, 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복지 학교로 지정이 되면, 복지 담당 선생님을 학교에 둘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의, 사실은 관성이죠. 이를테면 학생 수가 300명에 그 수가 60명이면 많지 않지만, 학생 수 100여 명에 60명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생 수 대비하지 않고 그냥 60명으로 봐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교인데, 그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지학교에서. 그러면 그 학교에 복지 담당 선생님을 둘 수가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이

거 관련해서 좀 문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송진환 비서관하고 좀 미팅을 해 볼 생각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하고 한번,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거 가지고 그걸 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현정 위원

네.

우리 동구 관내 학교입니다. 2개 학교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같이하는 가치있는 출생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중에 1번, 2번 세부 사업들은 해 왔던 사업들이고, 세 번째 같이하는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관련해서 보면 ‘아빠는 행복한 육아왕! 아빠 교실 운영’,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 가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작년에는 한 4회 정도 해서 60명이 참여해서 이제 아빠들의 양육, 교육법이라든가, 인식 개선 교육을 했고요. 올해도 동

일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숙 위원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작년에 60여 명. 30가구 60명 참여했습니다.

○ 김현숙 위원

그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네.

○ 김현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올해도 동일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검토해서 같은 방향이든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수요를 반영해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현숙 위원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아주 호응도, 만족도가 좋다고. 아빠들도 또 가정에 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숙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홍보 부분, 거기까지는...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숙 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들은 충분한 홍보가 있

어야 또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아무튼 하는 사업들이 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도 곁들여서 잘 해주시길,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예.

○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했던 것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관·인문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인문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업무 보고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3인

이지애, 박현정, 노진성

○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3인

김재식, 김현숙, 박종균

○ 출석공무원 9인

인문문화국장 임덕심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김종도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

청렴감사관 배주석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
